

“공도 저변 확대 온 힘...지역 빛내는 협회 만들 터”

“더 많은 공도인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활쓰기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협회를 이끌어하겠습니다.”

강원주 광주공도협회 회장은 최근 광주 남구 관덕정 광주공도협회 사무실에서 “공도는 전통과 역사를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한 무형유산이다. 광주공도협회는 공도인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활터 문화를 만들어야겠다. 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종목 저변 확대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도는 민족 고유의 전통무예이자 정신수양과 체력 단련이 조화를 이루는 스포츠다. 활과 화살을 통해 집중력·호흡·예절을 익히며 심신의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국공에는 기계적 보조장치가 없고, 145m의 먼 거리 과녁을 감각만으로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양궁과 차이가 있다.

강원주 회장이 공도와 인연을 맺게 된 건 전통무예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했다. 1990년부터 합기도 체육관을 운영해왔던 그는 당시 전통무술제연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민족 고유의 무술을 발전시켜보자는 뜻에서였다. 그 과정에서 활쓰기에 대한 흥미가 생겼고, 2005년 담양에서 최재훈 명궁을 만나 국궁을 시작하게 됐다. 그가 생각하는 공도의 매력은 심신 단련에 좋다는 점이다. 사대에 오를 땐 오롯이 활과 살만 가지고 서게 된다. 이어 목표에만 집중하면 과녁과 자신만이 남게 된다. 자연스레 바깥에서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수년간 활쓰기 수련에 집중해왔던 그는 제89회(2008년)·제92회(2011년) 전국체육대회 광주 대표 선수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관덕정을 대표하는 사무로 활동했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남구공도협회장을 역임했다.

6년간 공도인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는 공도의 저변확대와 함께 광주 소속 선수들의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마련하고 싶었다. 이것이



강원주 광주공도협회 회장

제17대 광주공도협회 회장 후보에 단독으로 등록하게 된 이유다. 2025년 1월 13일 실시한 선거에서 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결격 사유를 심사한 뒤 적격하다고 판단. 강 회장을 당선인으로 확정했다.

강 회장은 취임 후 1년을 돌아보며 “지난 1년은 협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한 시간이었다. 여러 현안을 해결해 나가며 지역 공도인들과 더욱 가까워졌고, 광주 공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공도 인프라 확대에 집중하며 발전하는 협회를 이끌어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남은 임기 기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새 활터(정) 건립을 꼽았다.

광주에는 4개의 정(관덕정·무등정·송무정·용진정)이 있고, 남구(1곳)·북구(1곳)·광산구(2곳)에 위치해 있다. 서구와 동구에는 활터가 없는 셈이다. 결국 특정 지역에 공도인들이 몰려 포화상태가 되고, 회원들의 불만들도 커진다. 새 활터와 체험 공도장을 마련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강 회장의 주장이다.

특히 국궁은 무가 다 보니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즉 관리주체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상 협회의 역할을 소화하는 곳은 정이다.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각 정들은 지역적·위치적 특색을 고려한 사품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해마다 늘어가는 공도인들을 안전하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활터를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

강 회장은 “새 활터 건립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160명의 회원이 사용하고 있는 무등정이 좁아 위기에 놓였다. 최근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서다. 활터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회는 광주시 및 시체육회와 긴밀히 협력해

무등정을 유지하고, 많은 시민들이 공도에 입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광주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족 고유의 전통무예인 공도의 발전을 위해서 서구와 동구에 활터가 생겨야 한다”며 “인프라를 확대해 광주 시민 누구나 활터에 접근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의 관리인(고전) 확보 역시 과제다. 고전은 정 내 환경정화뿐만 아니라 보수 등 전반을 관리한다. 전국적으로 예로부터 이어진 고전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지만, 광주의 경우 최근 없어졌다. 정 내에는 활 등 고가의 물품들이 많다. 1단부터 4단까지는 개량활을 사용하지만, 5단부터는 소말로 만든 전통활을 사용한다. 활 한 자루에 100만원에 달하고, 화살 또한 한 개에 4

만5000원이나 한다. 더욱이 활은 사용하기 위해서 1년에 걸친 해궁(갈무리)이 필요하다. 귀중품 관리와 함께 전통계승차원에서 고전을 확보하겠다는 강 회장의 방침이다.

강 회장은 인재육성을 위한 전국대회 유치에도 힘을 쏟는다.

그는 “전국대회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주말마다 있지만, 광주는 전국대회를 개최한 지 오래 됐다”면서 “대회 개최가 선수들의 실력 향상과 환경 개선으로 연결되는 만큼, 광주가 뒤처지지 않도록 임기 동안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강 회장은 생활체육인들이 엘리트 체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장비를 지원하고, 전국체육대회 대비 선수 육성과 시·도별 인력 보충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 회장은 “더 많은 시민들이 활쓰기를 쉽게 접하고 전통무예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체험·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젊은 층도 많이 회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도육성과 협회에서도 지도자들을 투입, 유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은 물론 무료 강습 등의 여러 방안을 생각 중이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문화유산인 국궁을 후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소년체전 종목에 등록하는 등 활의 매력을 알리고 성장했으면 좋겠다”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수한 활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없다. 시민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사진=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가성비 구단’ 광주FC, 새 시즌 도약 나선다

ACLE 8강·코리아컵 준우승 등 시민구단 새역사 작성 K리그1 효율성 1위...‘잘 쓰는 구단’ 운영 모델 입증

프로축구 광주FC가 지난해의 역사적인 성과를 발판으로 2026시즌 도약을 향한 준비에 나선다. 광주는 지난 시즌 K리그1,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코리아컵 등 3개 대회를 병행하는 강행군 속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하며 시민구단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구단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올 시즌에도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025년은 구단 역사에 남을 한 해였다. 광주는 ACLE 첫 출전임에도 일본 챔피언 비셀 고베를 1·2차전 합산 3-2(0-2, 3-0)로 제압하며 K리그 시도민구단 최초로 8강에 진출했다. 이는 국제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전력과 조직력을 입증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리그에서는 시즌 초반 4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이후 치열한 순위 경쟁 속에 파이널B로 향하는 아쉬움도 있었으나, 시즌 막판 5

경기에서 4승 1패를 거두며 반등에 성공, 최종 7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광주는 K리그1 3년 연속 잔류라는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갔다. 코리아컵에서도 구단 최초로 결승에 진출해 준우승을 차지하며 구단 역사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광주의 2025년은 ‘성공’뿐 아니라 ‘과정과 운영’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공개한 2025시즌 선수단 연봉 및 지출 현황에 따르면 광주는 승점 1점당 1억3600만원을 기록하며 K리그1 12개 구단 중 효율성 1위에 올랐다. 이는 리그 평균(약 2억4000만원)을 크게 밑도는 수치로 명실상부 최고의 ‘가성비 구단’으로 평가받았다.

총지출 73억7000만원으로 승점 54점을 획득한 광주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구단들과 비교해

높은 효율을 보이며 ‘많이 쓰는 구단’이 아닌 ‘잘 쓰는 구단’임을 숫자로 증명했다.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조직력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유지한 광주는 투자 대비 성과를 극대화하는 구단 운영 모델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는 2026년을 앞두고 제8대 감독으로 이정규 감독을 선임하며 또 한 번의 도전에 나섰다. 이정규 감독은 강한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 조직적인 움직임 등 기존 팀 컬러를 유지하는 동시에 전술적 완성도와 세밀함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동계 훈련 기간 동안 선수단은 착실하게 훈련에 임했으며, 오는 3월 1일 1R 제주 원정에서 승리로 시즌을 시작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는 2025년의 성과를 ‘정점’이 아닌 ‘새로운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아시아 무대 8강, 코리아컵 준우승, 리그 7위, 그리고 효율성 1위라는 결과를 넘어 지속 가능한 경쟁력 구축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



이정규 감독



지난 시즌 코리아컵에서 구단 역대 최초 결승에 진출해 준우승을 차지한 광주FC 선수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FC



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사전경기'로 열린 컬링 남자15세이하부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광주체중 선수단과 광주시 체육회 임직원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광주체중, 전국동계체전 컬링 ‘동메달’

준결승서 소양중에 아쉬운 패배 광주 첫 메달...‘동계 종목 활성화’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사전경기로 열린 컬링 남자15세이하부에서 광주선수단의 첫 메달이 나왔다.

23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대회 컬링 남자 15세이하부 준결승에서 광주체중(김현호·유태민·임강민·박해성)이 소양중학교(강원)에 아쉽게 패했다. 그러나 값진 동메달을 획득, 대회 초반 광주 선수단에 의미 있는 성과를 안겼다.

이번 메달은 동계종목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광주체중 선수들이 하계종목인 육상 훈련 경험을 바탕으로 동계기간 동안 광주빙상장에서 꾸준

히 훈련을 이어왔으며, 첫 출전임에도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체육회·시교육청·광주체중은 하계 중심의 훈련 환경 속에서도 동계종목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 선수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팀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가와 저변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23일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체육중학교 선수단의 값진 동메달 획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올해는 동계체육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빙상장을 활용해 동계종목이 전국 상위권으로 도약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5일부터 28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개최되며, 광주는 6종목 120명의 선수단이 160점 이상 획득과 종합순위 12위를 목표로 참가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